제주 항파두리성의 조사 성과[1)]

김 용 덕 (제주고고학연구소)

목 차

Ⅰ. 머리말
Ⅱ. 제주 항파두리성의 고고학적 조사현황
Ⅲ. 제주 항파두리성의 내성과 외성의 구조
Ⅳ. 제주 항파두리 내성 內 중심 건물지 구조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제주 항파두리성(缸波頭里城)은 제주지역의 유일한 토성으로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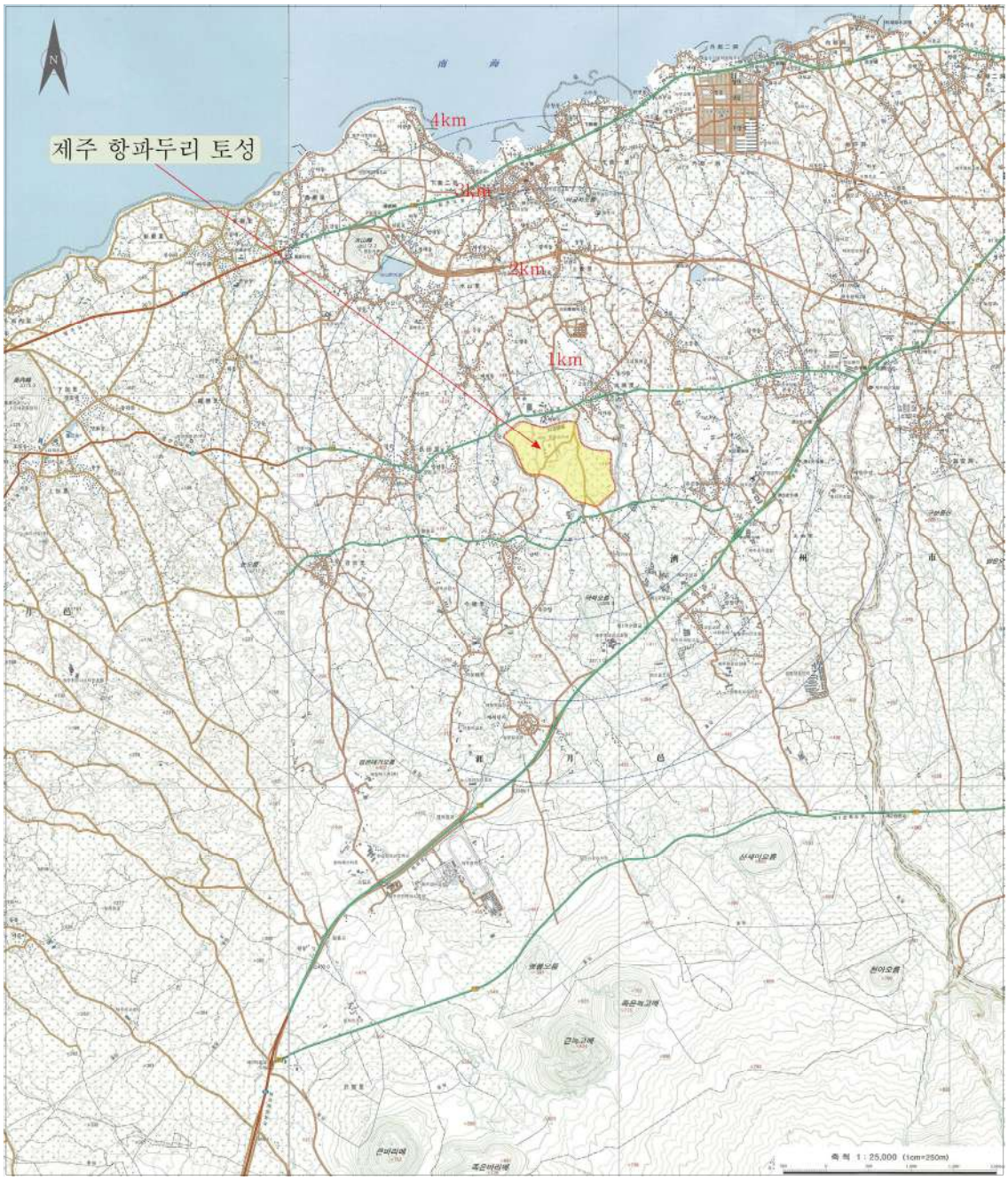
항파두리성은 해발 140~200m 의 중산간지역의 남고부저의 구릉에 축성되었으며 성 동쪽과 서쪽으로 고성천과 소왕천이 해안으로 흐르고 있어 자연적인 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항파두리성의 기본적인 구조는 내성과 외성의 2중 구조로 되어 있으며 성 북쪽으로는 외성과 연접하여 옹성이 자리하고 있다. 내성의의 평명형태는 제형이며 둘레는 대략 756m이다. 외성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으로 중앙부가 만입된 형태로 둘레는 대략 3.8km이다.

항파두리성은 원종 12년(1271년) 5월 진도가 함락되자 김통정장군이 잔존세력과 함께 제주도로 입도하여 구축하였으며 여몽연합군에게 함락된 원종 14년(1273년) 4월까지 대몽항전의 마지막 격전지였다. 항파두리성에 대한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고려사』 원종 13년(1272년 6월 29일[乙卯][2)]에 외성과 내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확인되며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古跡 조(條)[3)]에도 고토성(古土城)·고장성(古長城)·항파두고성(缸波頭古城) 등의 성(城)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위 문헌사료 내용을 살펴볼 때 현재 항파두

1) 본고는 김용덕, 2014, 「제주 항파두리성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한국성곽의 최근 조사 연구 성과』, (사)한국성곽학회 춘계학술대회 · 김용덕, 2015, 「제주 항파두리성 외성(2차) 조사성과」,『한국성곽의 최근 조사 성과』, (사)한국성곽학회 춘계학술대회의 발표요지를 요약하고 최근 항파두리성의 2014년 내성지(2차) 발굴조사와 2015년 항파두리 외성(3차) 발굴조사의 조사성과를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2) 『高麗史』 元宗 13年 6月 乙卯條에 「乙卯 遣將軍羅裕 將募兵一千五百五十餘人 討三別抄于全羅道 時賊旣入濟州 築內 · 外城 恃其險固 日益猖獗 常出擄掠 濱海蕭然」, "적은 이미 제주도에 들어가 내·외성을 쌓았는데, 그 험고함을 믿고 날로 더욱 창궐하여 항상 나와서 노략질하니 연해 지방이 肅然하였다."이라 하였다.

3)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古跡
古土城: 在州西南三十六里 周十五里 三別抄所築 今皆頹圮, **古長城**: 沿海環築 周三百餘里 高麗元宗時 三別抄叛據珍島 王遣侍郎高汝林等于耽羅 領兵一千以備之 因築長城, **缸波頭古城**: 在州西四十里 城中有泉 大旱不渴 高麗元宗十二年 遣金方慶討三別抄於珍島 破之 金通精率三別抄 來據貴日村缸波頭里 築此城拒之 方慶等進攻拔之 令千戶尹邦寶等 領元兵四百 及官軍一千人 留鎭而還, **涯月木城**: 在州西四十二里 卽三別抄所築 以禦官軍處 今半頹落.



도면 1. 항파두리성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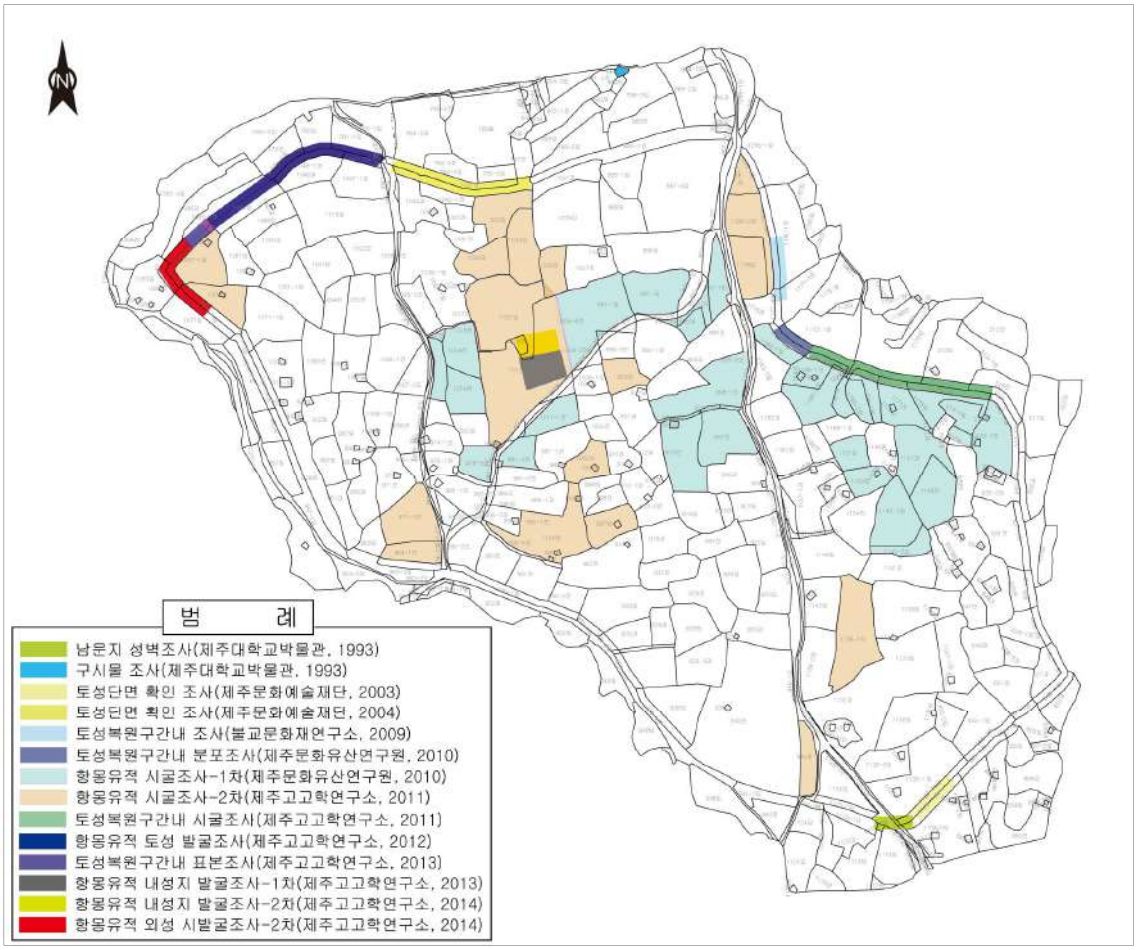
리성이 고려 삼별초가 축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항피두리성은 1978년 대대적인 정비와 복원 작업이 시행되었으나 기본적인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다 1997년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게 되었으며 2010년 이후 본격적인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항파두리성에 대한 구제척인 고고학적 성과가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항파두리성의 고고학적 성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제주 항파두리성의 고고학적 조사

1. 지표조사

제주 항파두리성에 대한 지표조사는 사적지정 전인 1996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1차 지표조사[4]를 실시하였다. 1차 지표조사에서는 항파두리성 전체에 대한 지표조사와 더불어 토성의 잔존현황, 내성지 건물지의 존재여부, 음용수를 취득하기 위한 보조성의 범위, 음용수 유적의 분포, 기와가마터, 망대추정지, 관련유적[포구유적, 사찰터, 진지, 전적지, 환해장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전까지 문헌조사에 그친 항파두리성에 대한 첫 고고학적 조사로서 의미가 있는 조사였다.



도면 2.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조사 현황도

2차 지표조사는 2002년에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정비계획[5]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02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다. 이 지표조사를 통해

4) 제주도, 1998, 『국가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5) 북제주군·제주문화예술재단, 2002,『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기본정비계획』.

건물지 추정지 17개소, 문지 3~4개소, 망대지 2개소, 내성지가 확인되었다. 수습유물 중 도자기류는 13세기 청자류가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게다가 분청사기와 백자의 양도 적지 않게 수습되어 15세기까지는 항파두리성 내에 일부 건물이 존속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3차 지표조사는 최근 2011년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종합정비계획[6] 일환으로 현황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 조사는 2002년부터 2011까지 이루어진 지표조사, 수습조사, 토성확인조사, 시굴조사의 조사내용을 정리하고 삼별초 관련 문헌조사와 현황조사를 추가하였다.

2. 발굴조사

1) 항파두리 외성 및 성 내부 조사

제주 항팡두리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1993년 추정남문지 발굴조사[7]와 구시물 구유[구시통] 수습발굴조사[8]를 시작으로 성에 대한 첫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되었다.

제주 항파두리 외성의 둘레는 총 3.8km로 2014년까지 약 2.3km 구간에 대해서 토성복원사업이 진행되었다. 외성에 대한 복원은 사적지정 전인 1977~1978년에 토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없이 1km에 대한 복원사업을 2개구간에 대해 실시하였고 이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4차례에 걸쳐 간단한 단면조사[9]를 실시하여 토성단면의 폭만을 확인하고 복원이 이루어졌다. 2011년도부터는 토성에 대하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11년에는 시굴조사[10], 2013년에는 표본조사[11]를 실시하였다<표 1. 참조>.

표 1.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조사 현황표(1993~2011년)

조사명	조사내용
추정남문지 발굴조사 (1993년)	토성내에서 가장 높은 해발 202m로 동-서 방향으로 길게 연결되어 축조된 상태였다. 조사결과 내외측 기저부 석렬이 확인되었으며 그 내부에는 현무암 할석이 부석되어 있었다. 판축상태는 크게 3개층으로 구분되며 세부층위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판축상태를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도판을 참고 했을 때 점토에 잔자갈이 포함된 흙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성의 단면형태는 외측은 단일경사를 이루고 있고 내측면은 단이 형성된 유단경사를 이루고 있어 토성내 여장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시물 구유[구시통] 수습발굴조사 (1993년)	항파두성 옹성 북편 구시물에서 조사된 '목조구유[구시통]'는 흘러내려오는 물을 힘들지 않게 저수(貯水)할 수 있도록 용천되는 구시물보다 2.5m 가량 내려온 지점에 시설되어 있었다. 확인된 목재 구유는 사각의 테두리 각목과 테두리곽 내부로 4개의 널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바닥 널판의 면적은 470×265cm로 대형의 구유통으로 여겨진다. 추정되는 구유통의 높이는 최소한 70cm정도이다. 목재판의 밑은 널판 중앙부분에 각목이 놓여 있었고 20cm 가량의 황색점토를 다져 놓았다. 이러한 시설로 보아 이 유구는 고정유구임을 알 수 있었다. 널판과 널판 사이의 틈새는 물이 새지 않도록 보충토 마감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유통은 주변 토층 상황으로 보아 고려시대층에 해당되어, 삼별초와 관련되어 만든 시설로 일단은 판단되었다. 남문지 부분 성벽과 구유통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기와, 도자기, 숫돌 등인데 기와인 경우 숫키와는 수지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무문과 단선문이 일부 보인다. 암키와는 무문과 수지문이 나타난다. 도자기는 12세기경의 청자편들이다.

6) 제주시·(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2. 『사적 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종합 정비계획』.
7) 제주도, 1998, 『국가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
8) 제주도, 1998, 『국가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토성단면 1차 조사 (2003년)	2003년 실시한 조사로 남문지 성벽조사구간에서 동쪽으로 약 50m 떨어진 지점이다. 조사결과 토성의 폭은 11.2~11.5m, 높이는 3.1~3.3m로 확인되었다. 토성내부에는 기저부 석렬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내부에는 잡석을 편평하게 부석하였다. 와적층은 토성 내측에서만 확인되며 6m 폭으로 와적되어 있다. 토성의 판축상태는 기반층이 확인되었고 기반층 상부는 5~10cm 두께로 판축되어 있으며 상층으로 갈수록 20cm 두께로 판축되어 있다. 또한 성외측은 수평적인 판축이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 내부의 경우 수평적인 판축면 사이에 부식토 내지는 황갈색풍화암반토를 겹겹이 다진 부분이 확인되었다. 이로 보아 성의 외부에 비해 내부를 견고히 판축한 것으로 보여진다.
토성단면 2차 조사 (2004년)	항파두리성 전체로 볼 때 북서쪽의 해발 140m 가량의 낮은 지역이며 1978년 당시 복원한 토성 서편에 해당한다. 조사결과 생토층 상부의 남북편으로 석렬을 만들었으며 석렬 사이에 암갈색점토층을 깔아 급격한 지형의 경사각을 줄였다. 이후 자갈들을 이용하여 적석층을 만들었으며 그 상층으로는 평탄면을 만들기 위해 점토층 다지기를 했다. 각 층은 명갈색의 사질점토(풍화토)와 흑갈색 내지 흑색의 점토층을 잔자갈과 섞어가며 단단히 다졌다. 이러한 축조과정이 3개 지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토성의 하부 기저부 석렬, 황갈색토층, 잔자갈층, 기와층으로 이루어진 여러 층의 판축상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토성단면 3차 조사 (2009년)	토성의 북문 추정지의 남쪽편으로 남북방향으로 연결된 길이 85m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성벽은 크게 6단계의 공정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벽의 기저부는 다짐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상부에 할석과 잡석을 이용한 적심석층이 설치되었다. 적심석층 상부로 모두 3차에 걸친 판축을 실시한 후 성벽에 대한 마감층은 판축층을 전체적으로 감싸듯이 형성되었다. 또한 성벽 외측부에서 기와층이 확인되었는데, 외벽외측부 기저부 석렬에서부터 외측으로 폭 2m 정도로 깔려 있는 기와가 배수시설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성단면 4차 조사 (2010년)	2009년 (재)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시굴조사한 지점에서 남동쪽으로 약 50m 이격된 지점이다. 해발높이는 약 171m 내외로 서에서 동쪽으로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다가 성 외곽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조사결과 기초석렬, 황갈색점토를 이용한 다짐층, 기와층, 판축상태 등이 확인되었다. 토성의 토층은 크게 4단계의 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토성의 기반을 만들었던 기반층으로 양단에 기단석렬을 배치시킨 후 그 사이에 현무암 할석과 잔자갈을 채워 넣은 다음 점토를 다진 후 1차 판축을 하였다. 2단계는 1단계의 상부에 10㎝ 내외로 비교적 편평하게 다져 올려 2차 판축을 하였다. 3단계는 토성 외측부로 수평을 맞추기 위하여 사면으로 황색점토를 이용하여 겹겹이 다진 후 황색점토 상부에 기와를 깔아 마무리 하였다. 이는 토성 판축부의 보강과 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일 것으로 판단된다. 4단계는 2단계의 상부부터 10~20㎝ 가량으로 비교적 겹겹이 3차 판축을 하여 토성의 상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토성 1차 시굴조사 (2011년)	조사대상지는 항파두리 항몽유적지의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고도 180m 내외로 안오름의 정상부와 서쪽 경사면을 따라 토성이 입지하고 있다. 조사결과, 성내외측으로 판축토부를 축조하기 위한 기초시설인 내외 기저부 석렬이 뚜렷이 확인되었다. 트렌치 1의 경우 내외기저부 석렬의 폭은 약 4.2m, 트렌치 2의 경우 내외기저부 석렬의 폭은 약 5m를 이루고 있다. 특히 내외기저부 석렬에서 다소 외부로 돌출된 대형의 영정주초석이 일정한 간격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영정주 초석렬의 존재는 판축토가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판축용 틀을 사용한 증거이다. 이러한 증거는 판축토층에서도 확인되었다. 게다가 성내측으로 토성 판축부의 보강과 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와적층 등이 확인되었다.
토성 표본조사 (2011년)	조사에서는 토성의 기본구조인 중심토루, 내·외피토루, 기저부 석렬, 와적층, 영정주초석 등이 확인되었다. 조사된 토성의 잔존 성폭은 958~999cm, 중심토루는 460~486cm이며 외피토루는 170~230cm, 내피토루 242~369cm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외 기저부 석렬의 높이 차이를 보면 2·3번 트렌치에서는 141~148cm, 4·5번 트렌치에서는 116~119cm로 확인되었다

9) 濟州文化藝術財團 文化財硏究所, 2003,『제주 항몽유적지 항파두리토성 보수정비에 따른 토성단면 확인조사 보고서』, 濟州文化藝術財團 文化財硏究所, 2004,『제주 항몽유적지 항파두리토성 보수정비에 따른 토성단면 확인조사 보고서』, 財團法人 佛敎文化財硏究所·제주특별자치도, 2011,『부록 -濟州 缸坡頭里 土城 復原區間 內 發掘調査』,

2012년에는 토성에 대한 첫 발굴조사[12]가 실시되었다. 항파두리 외성의 발굴조사지는 성 북서쪽으로 해발 약 140m 내외에 해당하며 성내측은 완만한 경사면을 유지하고 있고 성외측으로는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조사는 항파두리성 내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농로 동쪽부터 시작하여 서쪽으로 290m까지로 이 구간을 5개 지점으로 구분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2) 항파두리성 내부 조사현황

항파두리성 내부에 대한 조사는 2010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32필지(102,106㎡)에 대한 1차 시굴조사[13]를 진행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굴립주건물지와 망루지 등의 건물지, 수혈유구, 소토유구, 적석유구, 구상유구, 폐기장소 등 총 151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13세기대의 청자류, 원대도자기, 백자류, 수지문 위주의 기와류, 동전, 불상좌대, 철제 괭이, 철촉 등의 철제류와 정동병[정병], 청동숟가락, 청동잔 등의 청동제품류가 출토되었다.

2차 시굴조사[14]에서는 총 104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먼저 내성지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서 성벽 하단 기초석렬과 판축된 성토층이 확인되었다. 내성지는 사다리꼴[梯形] 형태로 각각의 장축 길이는 북쪽 178m, 남쪽 192m, 동쪽 194m, 서쪽 192m 정도이다. 내성 안에 자리했던 건물지와 부속시설 등은 모두 북서쪽(2구역 2지점)에 치우쳐 확인되었다. 내성지내 2구역 2지점에서는 건물지 기단석렬, 초석, 적심석, 문지도리, 부와시설(敷瓦施設) 등 다양한 시설물이 확인되었다. 그 외 시굴지역 전체에서 확인된 유구들은 수혈건물지, 수혈유구 등이며 부분적으로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13세기 말경에 제작된 다양한 기종의 상감청자류가 다수 출토되었고 기와는 연판문 막새류, 다양한 문양의 평기와류가 출토되었다. 금속제 유물로는 철제솥(鐵釜), 청동바늘, 청동젓가락, 동전(政和通寶) 등이 확인되었으며 석제 고누놀이판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2차 시굴조사을 통해 항파두성의 중심부인 내성지 범위 등이 파악되었다.

항파두리성의 내성지에대한 발굴조사는 2013년 1차[15], 2014년 2차 조사[16]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1970년대 조성된 돌담 내 동남측 부분의 2000㎡ 면적에 대해서 1차 발굴조사를, 북쪽 1,350㎡에 대해서는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1~2차 발굴조사 결과 총 13동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건물지 내외에서 찰갑편(갑옷)을 비롯하여 기와, 자기, 철기, 청동제품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토성복원구간내 문화재 분포조사보고서』.
10) 재)제주고고학연구소, 2011,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토성복원구간내 시굴조사 간략보고서』.
11) 재)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토성복원구간내 표본조사 간략보고서』.
12) 濟州考古學硏究所, 2014, 『제주 항파두리성 外城Ⅰ』.
13)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2, 『제주 회천동 유적- 부록: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문화재 시굴조사 보고서』.
14) (재)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문화재 시굴조사(2차) 보고서』.
15) (재)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문화재 내성지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16) (재)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문화재 내성지(2차)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Ⅲ. 제주 항파두리성의 내성과 외성의 구조

제주 항파두리성은 내성과 외성의 2중 구조[17]로의 토성이다. 내성은 성내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친 비교적 평탄한 대지에 축성되었고 외성은 동쪽 고성천, 서쪽 소왕천 두 하천 사이의 남고북저 경사면에 축성되었다. 외성 북쪽으로는 식수원인 옹설물과 구시물을 둘러 쌓고 있는 옹성이 반원형으로 축성되어 있다. 내성과 외성, 옹성 모두 조사결과 토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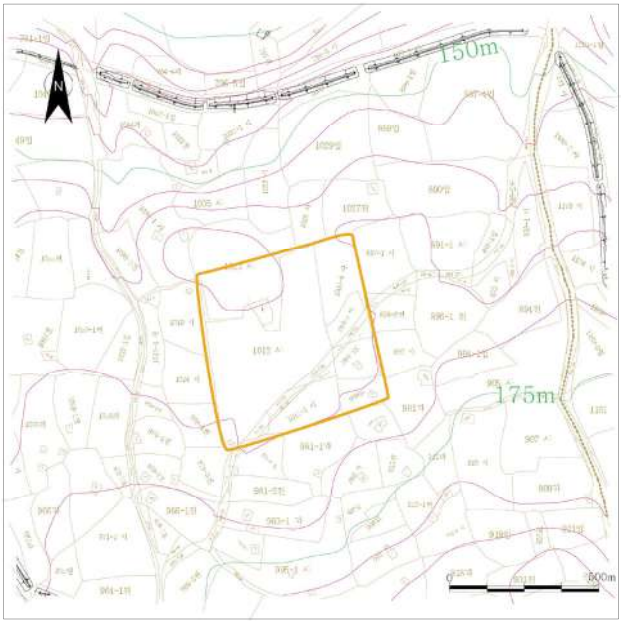
1. 내성[18]

제주 항파두리 내성은 2010년 시굴조사 이전에는 석성과 토성 의견이 갈려 있었으나 1차[19], 2차 시굴조사[20] 결과 토축된 토성으로 밝혀졌다. 내성은 항파두리성 북서쪽에 살짝 치우쳐 축성되어 있으며 지리적 위치는 애월읍 상귀리 1012번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1) 내성의 입지

항파두리 내성은 해발 160~165m 사이에 비교적 평탄한 대지에 위치하고 있다. 내성이 자리하고 있는 지대는 항파두리성 전체 지형상 남고북저의 지형을 보이고 있으나 내성 북벽 일대가 해발 168m로 주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내성 내부만을 놓고 보면 북쪽이 살짝 높은 북고남저의 지형이다. 내성 내부 건물지 조사에서도 북고남저의 건물 배치로 확인되었다.

내성 동쪽과 서쪽은 내성 내부보다 해발이 낮은 지대로 내성은 주변보다 높은 지대에 축성되었다. 이러한 지형조건으로 내성내부의 배수는 비교적 해발이 낮은 동쪽으로 유도한 것으로 발굴



도면 3. 항파두리 내성 지형도

17) 제주 항파두리성의 구조에 대해서는 내성과 외성 그리고 제주도 해안에 축성된 환해장성을 포함하여 3중 구조로 보는 견해가 있다. 문헌상에서는 환해장성의 축조에 대해서는 고려 원종때 侍郎 高汝林을 탐라에 보내에 삼별초를 방어하기 위해 쌓았다(『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古跡)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 정부에서 쌓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삼별초가 이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환해장성에 대한 면밀한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주 전 해안에 남아있는 환해장성과의 축성시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18) 제주 항파두리성의 내성은 성내의 중심건물[궁궐]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볼 때 궁장(宮墻)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나 항파두리성 구조에서 내성과 외성의 구조로 이해할 때 외성에 대한 명칭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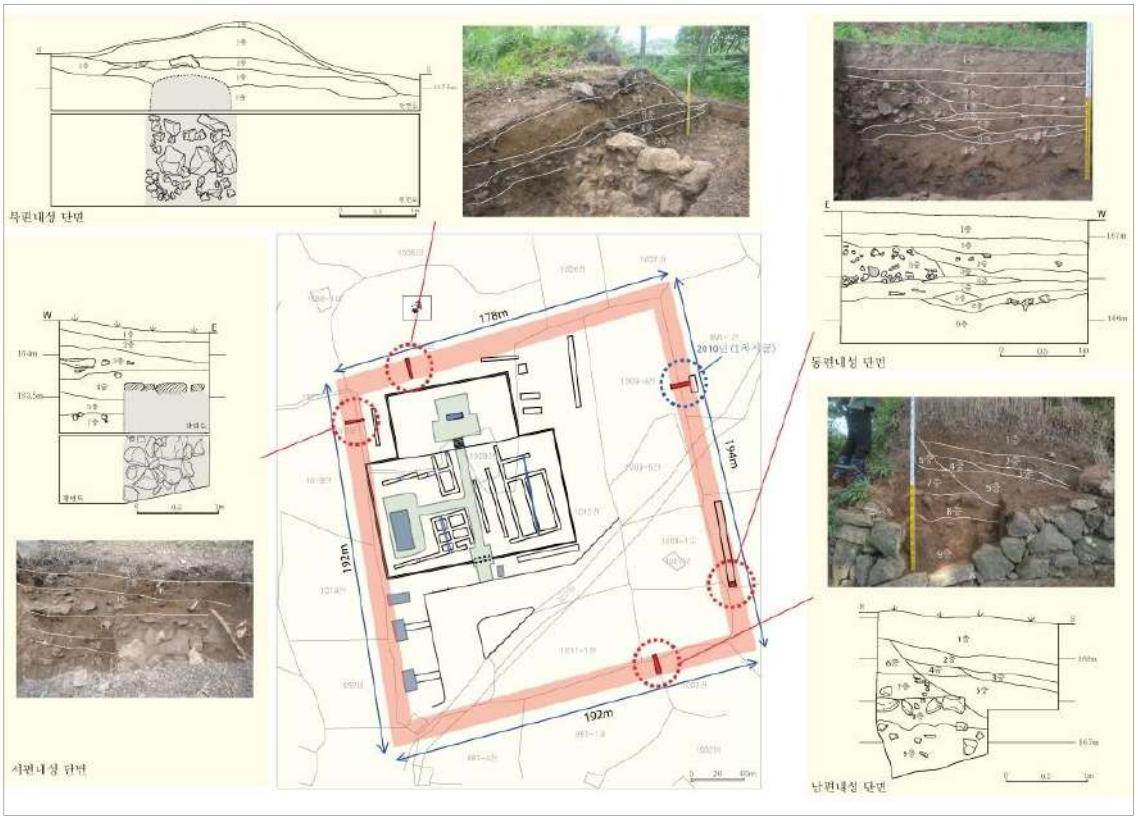
19) 주13) 전게서

20) 주14)전게서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2) 내성의 구조

제주 항파두리 내성의 평면형태는 북벽이 남벽보다 좁은 제형으로 확인되었으나 전체적인 형태는 방형을 띠고 있다. 내성의 장축방향은 N12.7°W이다. 내성의 규모는 내성 전체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아 정확하게 계측되지는 않았으나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내성 단면의 위치를 기준으로 지형 측량한 결과[21] 북벽의 길이는 178m, 남벽 192m, 동벽 194m, 서벽 192m이며 총 내성의 둘레는 756m로 확인되었다.



도면 4. 항파두리 내성 범위 및 조사현황도

내성의 북벽은 해발 168m에 위치하며 동서장축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내성 북벽에 대한 내부 구조는 2차 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북벽은 폭 500cm, 높이 85cm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성벽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성 북벽의 내부 구조는 바닥면을 정지한 후 중심부에 할석을 이용하여 기저부 석렬을 1열 축조하고 상부로 흙을 이용하여 성토하였다. 기적부 석렬은 1단이며 2~3열의 할석을 1m 폭으로 붙혀 내부에 소형 할석을 채워 기저부 석렬을 형성하였다. 기저부 석렬 상부로는 총 4개 층의 성토층이 확인되었으나 판축을 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성 동벽은 지번 경계선상으로 성벽내측에는 현무암할석이 밭담형식으로 덧대어 있는 상태이며 내성을 관통하는 도로까지 내성의 흔적이 남아있다. 동벽은 남북장축방향으로 연결

21) 제주고고학연구소, 2011,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시굴조사 자문회의 및 현장설명회자료」.

되어 있다. 동벽에 대한 조사는 1차 시굴조사와 2차 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1차 시굴조사에서는 1열의 기저부 석렬이 남북으로 6m 가량 확인되었으며 생토층을 'L'자형으로 굴착하여 점질토와 사질토를 교태로 성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차 시굴조사에도 교차되어 성토된 흔적이 확인되었다. 동벽 기저부 석렬의 경우 1열 만 성 외측에서 확인되고 있어 성내부와 외부에 2열의 기저부 석렬이 축조되었는지는 추후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벽은 항몽 유적 주차장에서 항몽 유적을 관통하는 도로 서쪽까지 범위로 동서장축방향으로 연결되어있으며 주창장과 주창장 서쪽은 과거 유적정비 과정에서 석축시설을 덧대어 놓은 상태이다. 남벽에 대한 조사는 2차 시굴조사시 항몽 유적 주차장과 과수원 통로에 있는 절개면에서 확인하였다. 절개면 조사결과 성토된 흔적과 성토하단부로 할석 열이 일부 확인되었다.

서벽은 내성 서쪽으로 단애면을 형성하며 남북장축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벽에 대한 조사는 2차 시굴조사시 서벽 북쪽 단애면에서 확인하였다. 단애면 조사결과 토루 중심부로 1열의 기저부 석렬이 확인되었고 그 위로 4개 층의 성토층이 확인되었다. 조사범위가 협소하여 전체 폭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성에 대한 조사결과 성의 둘레는 756m이고 평면형태는 제형으로 확인되었다. 내성의 폭은 4~5m 정도로 확인되었고 내부에는 1열의 기저부 석렬을 축조한 후 점질토와 사질토로 교차하여 성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국한된 시굴조사 결과만 가지고 정확한 내성의 축조형태와 구조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추후 발굴조사를 통해 정확한 내성에 대한 축조방법과 구조 특히 내성의 문지 위치와 구조를 밝혀야 할 것이다.

2. 외성

제주 항파두리 외성에 대한 조사는 1993년 남문지 성벽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성벽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간당한 단면조사를 실시하다. 본격적으로 2012년 외성에 대한 1차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현재(2015년)까지 3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 외성의 입지

항파두리 외성은 제주도 북서부 중산간지대[22]에 해당하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와 상귀리 일대에 위치고 있다. 제주시 하귀리 해안으로부터 약 3km 이격된 해발 140~200m 남고북저의 구릉에 자리하고 있다. 이 구릉은 해발 120m에서 급격하게 남쪽으로 경사가 높아져 올라가다 해발 140m 부터 해발 200m 까지 완만한 경사면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항파두리성은 완만한 구릉사면에 축성되어 있고 토성 서쪽으로는 소왕천, 동쪽으로는 고성천 두

22) 제주도의 지형은 고도 변화와 경사도를 기준으로 해안저지대, 중산간지대, 산악지대 및 고산지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해안저지대는 해발 200m 이하로 경사도가 4° 이하이며, 섬의 가장자리에서 매우 완만한 경사의 평지를 이루고 있다. 중산간지대는 해발 200~600m 사이이며, 산악지대는 해발 600~1200m 사이로 경사도는 10°~20°로 급한 사면을 형성한다. 고산지대는 해발 1200m 이상으로 경사도가 20°이상의 급사면을 이루는 지대로 구분하고 있다(제주도, 2006, 「지리」 제1권 ,『濟州道誌』). 항파두리성은 해발 140~200m 사이에 있어 제주도 지형변화상 해안저지대에 해당하나 중산간지대의 시작점으로 경사도가 급한 지형이며 인문지리적으로 주변마을들이 중산간마을에 포함되고 있어 중산간지대로 구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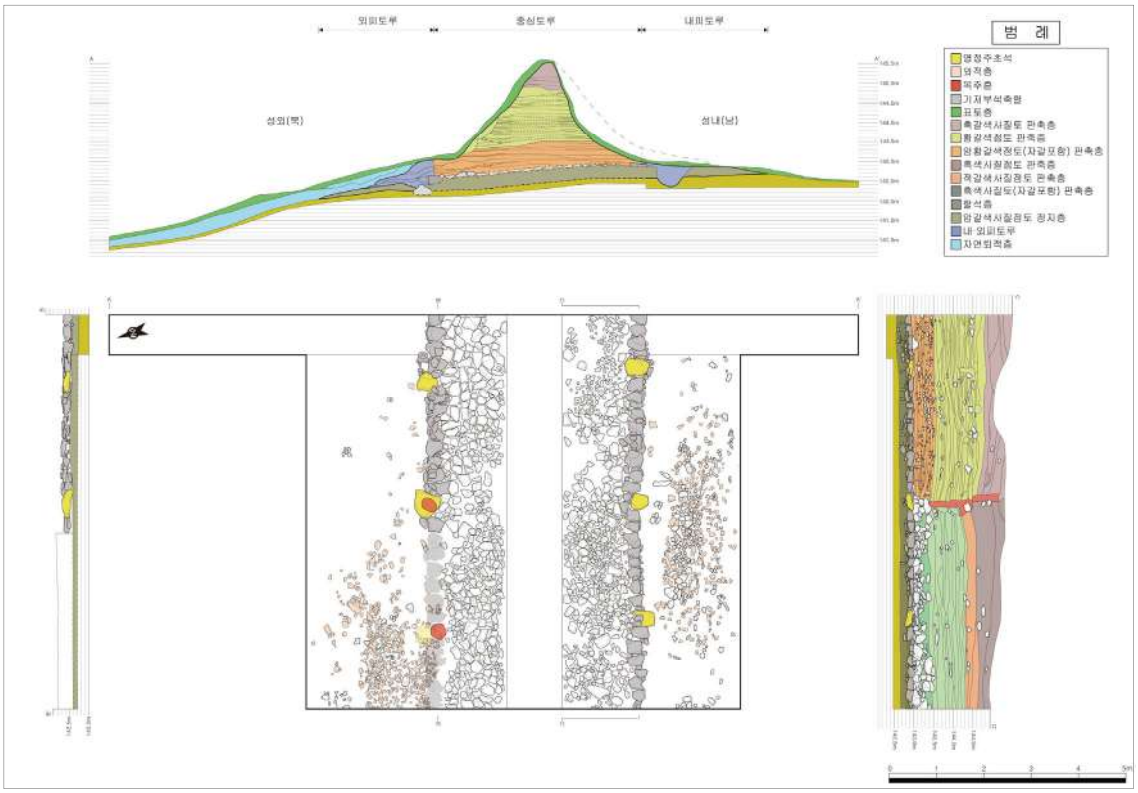
하천이 급경사면을 형성하고 있어 자연적 해자(垓字) 역할을 하는 지형적 조건과 성내부 자체가 구릉에 위치하여 적의 침입로인 해안을 조망하는데 유리한 지형으로 제주도에서는 찾아보기 드믄 천혜의 방어적 입지를 갖추고 있다.

2) 항파두리 외성의 구조

항파두리 외성은 평명형태가 북서-남동방향으로 긴타원형을 띠고 있지만 성 중앙부가 만입되어 있고 일부는 지형에 따라 형태가 불규칙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외성의 전체둘레는 문헌기록에는 15리로 표기되어 있어 6km로 알려져 있었으나 토성에 대한 발굴조사 당시 측량 결과 약 3.8km로 계측되었다.

항파두리 외성에 대한 지금까지 조사결과 항파두리성은 판축기법으로 축조된 토성확인되었다. 토성은 중심토루와 이를 덮고 있는 내·외피토루로 중심토루의 하부의 기저부 석렬로 구성되어있다. 이와 관련된 시설로는 와적층, 성내 수로시설 등이 있으며 2014년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석축으로된 등성(登城) 시설이 있다.

항파두리 토성의 축조공정은 기반 조성, 기저부 석렬 조성, 중심토루 조성, 와적층 조성 및 내·외피토루 성토의 4차에 걸친 공정 순서로 축성이 이루어졌다. 항파두리 외성의 자세한 축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면 3. 항파두리 외성1차 발굴조사 1지점 평단면도

1차 기반조성은 항파두리 외성 발굴조사 구간에서 삭토한 흔적이 조사단면에서 확인되었으며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이루어졌다. 항파두리 외성의 경우 중심토루가 조성되는 구간은 사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ㄴ'모양으로 굴착하여 하부의 안정성과 축조 작업의 원활성을 위해 삭토 작업을 하고 삭토면 상부에 일정부분 성토하여 정지작업이 이루어졌

다. 대부분은 내피토루에서 외피토루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 외피토루가 유실된 구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경사면이 급한 북쪽에 위치한 토성에서만 'ㄴ'자 형태가 확인되며 남쪽의 경사가 약한 지대에서는 수평상의 정지층만이 확인되어 지형적인 조건에 따라 삭토의 단면형태를 달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1차 기반조성이 완료된 후 2차 공정으로 기저부 석렬을 조성하였다. 지금까지 항파두리 외성 조사에서 확인된 기저부 석렬은 성벽의 내외측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다. 석렬은 내측과 외측 바깥면을 맞추고 있으며 안쪽으로는 요철면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성격이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성벽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23]가 있어 이와 같거나 중심토루 하부와 마찰력을 높여 견고하게 판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항파두리 외성의 기저부 석렬은 성 북쪽 토성은 내측석렬이 외측석렬에 비해 높게 조성되고 있고 성 남쪽 토성은 내외측 석렬의 높이차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외성 북쪽 토성내에서 확인되는 석렬의 높이차는 경사도가 높은 곳일수록 내외측간 석렬 간의 높이차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기저부 석렬 사이로 판석 및 할석을 내부에 채워놓았다. 이는 제주도 항파두리 토성에서만 보이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항파두리 토성이 산정상의 능선이 아닌 구릉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형적 차이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즉, 물에 의한 토성의 붕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석렬에서 약 3m 간격으로 석재를 돌출시켜 놓은 영정주초석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영정주를 받치는 초석의 역할을 하는 석재로 육지부에서는 강화중성에서 확인된 바 있다. 강화중성에서는 적심형태와 영정주초석을 놓은 형태가 복합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항파두리 토성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조사에서는 모두 영정주초석을 이용한 형태만 확인되고 있다. 항파두리 토성의 기저부 석렬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같은 시기의 강화중성의 축성공법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며 차이점은 지형적 차이에서 오는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차 공정인 중심토루는 판축토루로 기단석렬 위에 조성되었다. 판축의 양상은 부분적으로 사용된 흙과 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성 북동쪽 안오름이 위치한 성벽의 흙은 스코리아가 다량 포함되어 있고 양질의 점토확보가 유리한 남쪽은 황갈색점토가 주재료로 사용되었다. 내성지 앞과 발굴조사된 북서쪽 토성은 다량의 활석이 포함된 흙을 사용하여 판축하였다. 이처럼 토성이 지나는 주변 토양에 따라서 내부에 판축된 흙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심토루의 판축형식은 점토나 내부에서 잔자갈이 포한된 점토을 이용해 토성 상부까지 판축한 형식과 토루 내부에 20cm 내외의 할석을 채워넣어 적석층을 형성하여 판축하는 형식의 2가지로 구분된다.

판축의 과정은 대체로 3단계로 나뉘고 있다. 1차 판축은 성벽의 기단 조성으로 기본적으로 외측 기단석렬 상면에서 내측 기단렬 상면까지 회백색의 사질토를 이용하여 다진 공정을 말한다.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기 위해 내·외측의 수평을 맞추고 성벽 기초를 강화하는 과정이다. 1차판축 과정에서 회백색의 사질토와 5~10㎝ 정도의 현무암 자갈을 이용하여 단단하게 다진 구간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구간은 외측부가 경사도가 급한 구간에서 확인되고 있다. 2차판축은 수평으로 다져진 기단 위에 성벽을 높여 쌓는 과정으로 판목시설에서 종판목을 설치한 후 다진 과정이다. 5~10㎝의 두께로 점토와 사질토를 교차하며 판축이 이

23) 財團法人 中原文化財硏究所, 2012,『江華 玉林里 遺蹟』.

루어진다. 3차판축은 판목시설에서 종판목을 제거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정으로 판축층의 두께가 10㎝ 이상으로 두꺼워지며 풍화암반토와 점토 및 사질토가 이용되었다.

4차 공정은 와적층 및 내·외피토루 축조이다. 내외피토루는 중심토루의 내·외측을 판축틀의 사용없이 흙으로 덮어 성벽의 축조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축조방법은 중심토루와 같이 정교한 판축이 아닌 성토 작업이다. 중심토루의 하단부에서부터 사면으로 덧붙여서 황갈색 점토를 이용하여 성토되었으며 이후 기와를 깔고 다시 전체적으로 성토되었다.

와적층은 중심토루를 중심으로 내·외측에서 모두 확인되었는데 내·외피토루의 상부 제거 후 노출되었으며 중심토루의 하단부 및 기저부 석렬을 덮고 있다. 와적층의 규모는 150~300㎝로 다양하며 중심토루와 인접할수록 와적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후대경작과 자연적으로 유실된 구간을 제외하고는 내·외측부에서 다량의 와적층이 확인되고 있어 항파두리 외성에서는 다른 토성들과 달리 상당량의 기와를 토성내에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1. 외성 2차 발굴조사 2호 석축(등성)유구

4차공정과 더불어 이루어진 공정은 등성시설의 설치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등성시설은 총 6기이며 이중 3기는 조사되었고 나머지 3기는 조사 중에 있다. 이 등성시설의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방형이나 일부 토성내측으로 멀어질수록 면이 좁아지는 제형을 띠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등성시설은 우선 외곽으로 대형의 할석을 기단의 형태로 돌린 후 다양한 크기의 현무암 할석을 이용하여 내부를 적석한 후 점토를 덮어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215~360㎝, 폭 255~320cm로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등성시설은 모두 토성의 진행방향과 직교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토성 중심부로 단을 형성하여 내피토루 경사면과 경사각을 맞추어 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등성시설의 축조는 토성의 기저부 석렬 상단부터 시작되며 기저부 석렬 위로 내피토루를 10~30㎝ 정도 판축한 후 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등성시설간의 거리는 대략 30~45m의 간격으로 확인되고 있어 항파두리 외성 내측 전체에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4)]

항파두리 외성 조사에는 기저부 조성방법, 기저부 석렬의 형태, 판목시설의 설치, 중심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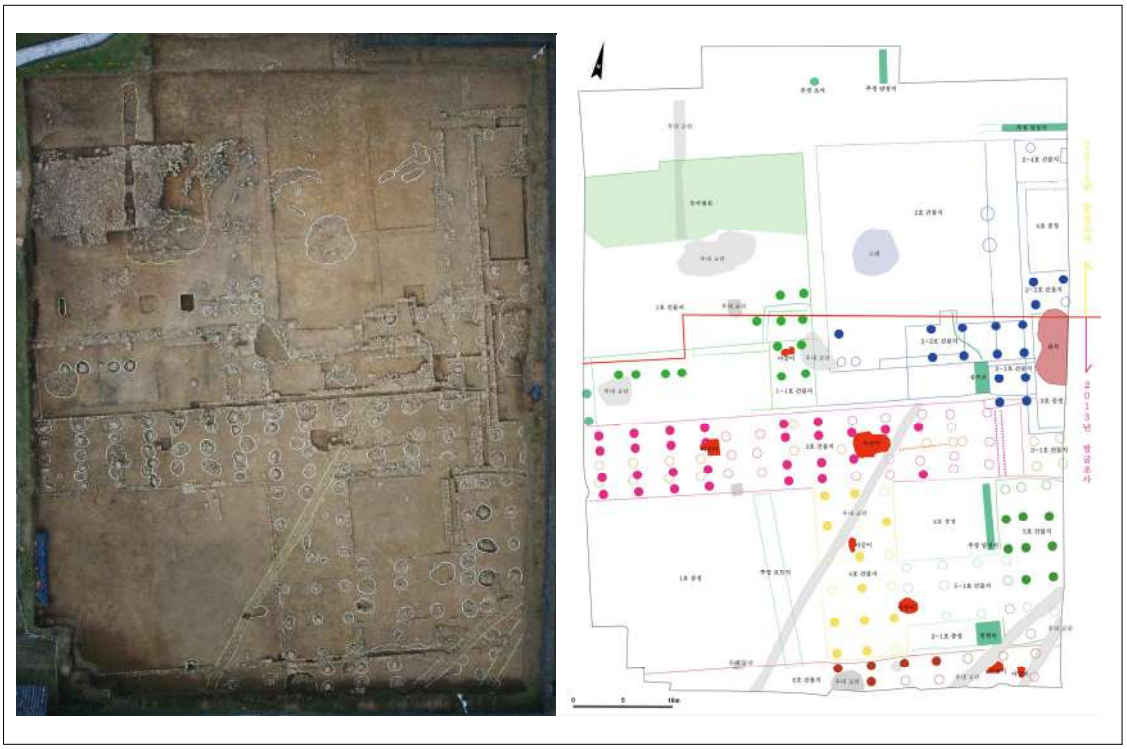
24) (재)제주고고학연구소, 2014,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외성(外城)시·발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루의 판축방법과 등성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조사된 자료들은 육지부의 토성들과도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동일한 세력에 의해 동일한 시기에 축조된 강화도의 강화중성과도 일부 변화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항파두리 외성의 축조구조 특징은 첫째 기저부 석렬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영정주를 세우기 위하여 돌출된 초석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등성시설을 등간격으로 배치한 점, 셋째 양단 기저부 석렬 내부에 판석 및 할석을 채워 놓은 것, 넷째 내측으로 와적층을 두텁게 조성한 것, 다섯째 토성 구간별로 판축된 흙이 다른점, 등을 들 수 있다. 첫번째의 경우는 강화중성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그 이전 시기의 토성에서는 영정주의 위치에 석재가 빠져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당시 축성 공법의 변화 또는 기술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등성시설의 경우 고려시대 토성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시설로 항파두리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이다. 이는 발전된 기술 접목이거나 강우에 의한 토성 진입에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한 기능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항파두리 토성이 산정상의 능선이 아닌 산사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형적 차이와 강우량이 많은 기후적 조건으로 인해 유수에 의한 침수를 최대한 막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Ⅳ. 제주 항파두리 내성 內 중심 건물지 구조

항파두리 내성에서 현재까지(2014년) 총 13동의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건물지 내외부에서 무구류와 와전류, 청자류, 철기류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다만 조사범위가 전체 내성



삽도 1. 내성지 2차 발굴조사 공중촬영 사진 및 건물배치 모식도

지 면적에 비해 협소하여 구체적인 배치와 구조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까지 조사된 건물지의 배치 및 구조 등만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건물지의 전체적인 배치는 남향으로 조사지역 중앙에 위치한 3호 건물지를 축으로 남쪽의 중정(中庭)을 사이에 두고 '□'자형으로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건물지는 대부분이 연결되거나 연접되어 있다. 3호 건물지와 6호 건물지는 4호 건물지와 연결되며 4호, 5호는 5-1호 건물지와 연결되어 있고 1호, 2호 건물지는 1-1호와 2-1호 건물지로 3호 건물지와 연결되어 있다. 내성내 조사된 모든 건물지는 서로간 연결 또는 연접된 배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방어적 기능상에서 이러한 배치형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물지의 규모는 대부분이 조사범위 밖으로 이어져 있어 정확한 건물의 정면과 측면의 칸수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 이 중 규모 파악이 가능한 건물지는 3호, 4호, 5호 정도이다. 3호 건물지는 할석재 기단과 초석을 이용한 동-서 장축의 정면 12칸 이상, 측면 3칸의 대형 건물지이며 4호 건물지는 남북장축으로 정면 2칸, 측면 5칸이고 5호 건물지는 남-북 장축의 정면 3칸, 측면 3칸 이상의 장방형 건물지이다. 앞으로 전체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건물의 규모는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건물지의 기단은 3호, 4호, 6호 건물지는 1매의 할석을 세워 처리하였고 그 외 건물지는 대형할석이나 판석을 평적하거나 2열 또는 내부에 할석을 채워놓은 형태로 기단으로 조성하였다. 건물지의 내부시설로 아궁이가 1-1호, 3호, 5-1호 등의 건물지내에 설치되어 있고 그 외 4호, 6호 건물지에도 유사한 시설이 있다. 아궁이 시설은 뒷벽을 판석 또는 할석을 이용해 'ㄷ'자 형태로 처리하였고 아궁이 부분은 원형 또는 방형으로 내부에는 다량의 소토와 목탄이 퇴적되어 있다. 아궁이의 크기는 장축이 136~374cm로 다양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건물지의 규모나 아궁이의 용도에 따라 크기를 조절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아궁이와 관련된 시설은 1호 건물지에 설치되어 있다. 시설물은 판석을 바닥에 깔고 와전을 세워 연결한 형태의 구조물로 초석보다는 낮게 설치되어 있다. 이는 아궁이에서 나온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배연시설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 2. 내성지 1차 발굴조사 건물지 내 아궁이 모습

내성 건물지의 배수는 전체적으로 건물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내성의 지형이 건물지가 확인된 지대가 동쪽보다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자연적으로 배수를 동쪽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차 시굴조사 과정에서 내성내 동쪽부분에서 저습지가 확인되었다. 저습지는 발굴조사된 건물지 동쪽에 해당하며 건물지에서 배수된 물을 모아가두는 집수시설로 인위적으로 이 저습지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배수시설은 각기 다른 건물지 기단과 기단 사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상부가 개방된 형태의

배수로이다. 배수로는 1호, 2호 건물지와 3호 건물지 사이 · 3-1호, 5호 건물지 사이 · 6호 건물지 북쪽에 축조되어 있다. 배수로의 유로 방향은 모두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건물지내에서 확인되는 배수시설은 2-1호 건물지 하부에 설치된 와관으로 2-2호 중앙에서 북서쪽에서 남동방향으로 2-1호 건물지 사이에 설치된 배수로와 연결되어 있다. 와관과 연결된 배수로 사이에는 방형의 와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와적은 건물지내 배수된 물을 1차적으로 집수하고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내성 건물지 중 증·개축과 관련된 부분도 확인되었다. 2호 건물지 동쪽부분으로 퇴적층 아래에서 다른 건물지인 2-2호 건물지가 확인되었으며, 2-2호 건물지의 기단과 초석은 배수로와 2-1호 건물지의 초석으로 재사용되었다. 이는 건물의 증·개축 또는 항파두성 내성 축조 이전이나 이후에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내성 건물지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다양하다. 유물 중 청자류와 철기류, 청동류 등은 강화 고려 중성이나 진도 용장성에서 출토된 유물과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삼별초의 이동과 함께 항파두성으로 유입되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와류 중에서 막새는 연화문수막새와 당초문 암막색가 출토되어 진도 용장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용장성에서 다수 확인되는 8엽 단판연화문수막새는 보이지 않고 7엽 단판연화문수막새와 소형의 9엽 단판연화문수막새 등이 출토되고 있다. 명문와는 소수 확인되고 있으며 고내촌(高內村), 만(卍) 등이 해독 가능하며 나머지는 흔적만 확인된다. 고내촌(高內村) 명기와는 고려 충렬왕 26년(1300) 기록에서 확인되는 16현촌 중 하나인 고내촌[고내현] 기와의 출처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와요지가 항파두성 내부와 토성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항파두성

사진 3. 내성지 출토 유물(좌 : 1차 발굴조사, 우 : 2차 발굴조사)

내성지에 사용된 기와는 당시 제주지역의 기존 건물 기와를 재사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수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된 무구류 중 갑옷은 찰갑으로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며 길이 10cm 미만의 판상 철재로 2-1호 내부에서 산재되어 출토되었다. 그 외 철모(鐵矛)와 철촉, 청동촉 등의 무기류가 함께 출토되어 고려시대 무기사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Ⅴ. 맺음말

제주 항파두리성은 고려시대 삼별초 대몽항쟁의 마지막 보루로, 제주지역의 유일한 토성이다. 항파두리성은 내성과 외성의 2중 구조로 되어 있으며 성 좌우로는 하천이 흐르는데 방어에 유리한 구릉사면의 지형을 이용하여 축성되었다.

항파두리성에 대한 지금까지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를 통해 항파두리성과 관련하여 문헌이나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다양한 성격의 유구 및 유물의 존재를 확인하는 고고학적인 성과를 얻었다. 또한 외성에 대한 단면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통해 토성의 구조가 파악되었고 내성지 발굴조사를 통해서는 항파두리성의 중심건물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가 확인되었다.

내성은 시굴조사를 통해 토축된 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적인 평면형태가 제형으로 확인되었다. 내성의 둘레는 756m로 확이되었으며 1열의 기저부 석렬을 중심으로 성토한 형태로 확인되었다. 다만 협소한 면적에 대한 시굴조사만 이루어져 내성의 정확항 구조와 문지의 위치 및 구조 등을 밝히기에는 아직 부족하며 추후 발굴조사를 통해 내성의 정확 구조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외성은 판축토성으로 축조는 기반조성을 한 후 기저부 석렬을 설치하고 석렬 사이에 영정주초석을 배치하여 조성하였다. 기저부 석렬 상부에는 성체의 중심부인 중심토루를 판축용 틀을 사용해 판축하였다. 중심토루의 판축은 지형과 주변토양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축하였고 외피토루와 와적층 또한 제주의 지형적 특징과 기후적 특징을 감안해 두껍게 와적하여 유수에 토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염두해 두고 토성을 축조하였다. 또한 내피토루를 성토하면서 성을 쉽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방형의 석축으로된 등성시설을 설치하였다.

내성지 건물지는 건물 간에 연접 또는 연결된 '□'자 형태의 배치가 확인되었다. 또 건물지 내에서는 아궁이 등의 부속시설이 확인되었다. 배수시설은 건물지 기단을 이용 개방된 형태의 배수로로 건물지 동쪽의 저습지로 유도되었다.

건물지내에서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그 중 자기류와 금속류는 삼별초 이동과 함께 유입된 것이며 기와는 명문과 문양 등을 고려 할 때 당시 제주지역에서 제작 또는 재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항파두리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외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차후 토성에 대한 정비복원에 따라 성의 문지와 토성과 관련된 기타시설을 찾는 조사가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성 내 건물지는 현재 한정된 공간에 한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차후 전체 면적을 발굴조사하면 건물지의 배치와 구조가 파악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조사가 계획적으로 진행된다면 제주 항파두리성의 전체적 구조와 고고학적 성격이 뚜렷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